

日언어학자 노마 히데키가 묻는다...'한국의 지(知)란 무엇일까?'

최종수정 2014.09.30 11:19 기사입력 2014.09.30 11:19

한일 공동 대규모 지(知) 프로젝트인 '한국의 지(知)를 읽다' 발간 기념으로 방한



노마 히데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한글'의 지적, 미적 혁명성을 말하는 책 '한글의 탄생'으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학회 주관 주시경학술상을 받은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가 오는 10월 방한한다.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노마 히데키가 한일 공동 대규모 지(知) 프로젝트인 '한국의 지(知)를 읽다' 발간 기념으로 오는 10월6일 방한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는 노마 히데키가 한일 지식인 140명에게 '한국의 지(知)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책을 추천받아 엮은 '한국·조선의 지(知)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한국의 지(知)를 만날 수 있는 책으로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추천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해 일본에 러시아 문학 붐을 일으킨 전 도쿄 외국어대학 학장 가메야마 이쿠오는 김지하의 '불귀'를 꼽았고, '창작과 비평'의 창간인이자 한국

재야 원로의 좌장격인 백낙청은 김석철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을, 한국문학의 얼굴 신경숙은 최인훈의 '광장' 등을 소개했다.

노마 히데키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의 지(知)를 읽다' 발간 기념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7일 오후 2시 파주북소리 축제가 열리는 파주출판도시에서 '지와 한글 - 한국의 지를 읽다' 강연을 개최하며, 같은 날 오후 7시30분에는 홍대 아트센터에서 '한글-음(音)의 형태, 지(知)의 신체'를 진행한다.

또 8일 오후 3시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지(知)의 원리론으로서의 한글'라는 타이틀로 강연을 가질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日 지식인들 “김지하 詩를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노마 히데키 교수, 韓·日 140명 추천서 묶은 ‘한국의 지를 읽다’ 출간

양국 함께 써낸 ‘한국 지성 탐구서’ ‘韓流 음악·영화 높이 평가하면서 정작 知 언급 못하는 것은 불균형 지적 교류·공감대, 강한 힘 낼 것’

“한국의 ‘지(知·지식이나 앎)’에 대한 책을 1~5권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2000자 정도로 써주세요.”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이렇게 물었다면 덜 놀랐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한 청탁자는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 그는 지난 1년3개월간 일본의 소설가·문예평론가·출판인·언어학자·영화감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되도록 손에 넣기 쉬운 책을 선정해달라”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조건도 달지 않았다. 노마 교수는 2010년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을 일본에서 출간해 2012년 외국인 최초로 한글학회가 주는 주시경학술상을 받은 지한파(知韓派) 지식인이다.

그는 2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류(韓流)’로 통칭되는 한국의 영화·음악·드라마는 일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면서도 “반면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지’에 대해선 일본의 뛰어난 지식인조차 자신 있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적을 가능하기 힘들 만큼 유창한 한국어였다.

지인과 출판사를 통해 알음알음으로 작성한 대상자에게 1000통 가까이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자 조금씩 답변이 들어왔다.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일본에서 100만부 넘게 팔린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도스토옙스키)’을 번역한 가메야마 이쿠오 전 도쿄외국어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내친김에 그는 문학평론가 김병익·백낙청, 소설가 신경숙·성석제·김연수, 극작가 이강백, 건축가 승효상, 디자이너 이상봉 등 한국 지식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 지식인 94명, 한국 46명 등 140명의 답변을 묶어 펴낸 책 ‘한국의 지(知)를 읽다’(위즈덤하우스)가 다음 주 한국에서 출간된다. 한·일(韓·日)의 지성이 함께 쓴 ‘한국 지성(知性) 탐구서’다. 일본판으로는 지난 2월 먼저 소개됐다.

일본의 대표적 문예비평가 가라타니는 한국의 대표 지성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꼽았다. 그는 “이 책이 나에게 충격을 준 까닭은 일본의 특성을 서양이나 중국과의 차이점을 통해 이끌어내는 답변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그것을 한국과의 차이를 통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가메야마 전 총장은 김지하 시인의 시 ‘불귀(不歸)’를 추천하면서 “박정희 정권에 반기를 들고 두 번이나 사형 판결을 받은 김지하를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국에는 이토록 강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첫인상을 고백했다.

일본 지식인 94명이 추천한 한국 관련 도서는 264종이었다. 수필가 김소운이 일본어로 번역한 ‘조선 시집’



윤동주 김소운 김지하



신경숙 김중혁 한강

일본 지식인들이 꼽은 한국 관련 주요 서적들

저자	저서	추천 횟수
김소운	조선 시집·조선 동요선 등	7회
김중혁	악기들의 도서관	5회
김지하	불귀·상흔에 핀 꽃 등	6회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 등	8회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4회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등	3회
유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등	5회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5회
이사벨라 버드 비숍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4회
한강	채식주의자	4회
황석영	오래된 정원·손님 등	3회

‘조선 동요선’(7회)과 김지하의 시·산문(6회), 윤동주·유안진(이상 5회)의 시, 김중혁(5회)·한강(4회)·황석영·신경숙(이상 3회)의 소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과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이상 4회) 등의 추천 빈도가 높았다. 노마 교수는 “윤동주·김지하·이어령 정도를 제외하면 겹치는 책이 별로 없을 정도로 추천 서적의 종류가 예상보다 훨씬 폭넓고 다양했다”고 말했다.

한국 지식인 46명도 137종을 추천했다. 시인 김수영의 시·산문 전집과 유



조선일보 DB

‘한국의 지(知)를 읽다’를 펴낸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나도 처음 들어본 책들이 많았다. 한·일 대표적 지식인들의 관심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다양했다”고 말했다.

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이상 4회), 시인 이상(李箱) 문학 전집, 박경리의 ‘토지’, 문학평론가 김현의 ‘한국 문학의 위상’(이상 2회) 등을 골랐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 논란 등 우경화(右傾化)로 인해 한·일 관계에도

경색 조짐이 뚜렷하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는 한·일 지식인들이 지적인 연대와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양국 사이에 이같은 공감대가 존재할 때 더욱 강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아주경제

[새책] 한-일 지식인 140명의 '한국의 지지를 읽다'

편저 : 노마 히데키 | 역 : 김경원 | 그림 : 이상남 | 위즈덤하우스 펴냄

박현주 기자 (hyun@ajunews.com) | 등록 : 2014-10-08 16:52 | 수정 : 2014-10-08 16:52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책을 산 그날, 나는 밤을 새워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 예술가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 그 책을 통해 나의 미래, 영화감독의 삶, 예술가의 자세를, 영화감독이 되기 위한 입문서를 읽은 것이었다. 폴 고갱이 자유를 위해서 배가 고파도 목걸이를 매단 개가 되지 않고 배고픈 늑대로 살았던 것처럼. ('이명세, 고은의 [이중섭 평전]에 대한 글' 중에서)

"책은 인간 백남준의 인생과 '예술을 모른다.'는 백남준의 예술을 조용하게 진술한다. 1960년대 뉴욕의 반항아들은 고딕된 고급예술에 반기를 들고 조지 마키우나스를 중심으로 플럭서스Fluxus 본부를 창설하고 무정부주의, 허무주의의 극을 벌여 예술로 표현했다. 책은 시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현대미술에 초태한다. 독자들은 백남준과 구보타, 그의 주변 작가들과 함께 뉴욕 아방가르드의 거리를 걷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남, 구보타 시게코의 [나의 사랑, 백남준]에 대한 글' 중에서)

지난 2월, 일본의 쿠은 출판사에서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라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의 지식인 46명, 일본의 지식인 94명이 '한국의 지지만 무엇일까?'라는 뜻밖의 질문에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이 책 '한국의 지지를 읽다'는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한국의 지'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한국의 지'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히 지내는 사이, 일본인 학자 한 사람이 '한국의 지'에 주목했다. 노마 히데키, 세계문자사에서 '한글의 혁명성을 말하는 책 '한글의 탄생'으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학회 주관 제6회 주시경상을 받은 인물이다. 2010년에 출간된 이 책은 일본 지식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며 마이니치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제22회 아시아태평양상을 받았다. '한글의 탄생'이 '지'의 관점에서 한글을 조명한 그의 첫 번째 '지' 프로젝트라면, '한국의 지를 읽다'는 '지'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 전체를 조망한 그의 두 번째 '지' 프로젝트다.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라는 단어가 붙어서 논의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예술, 영화와 드라마, 노래, 배우, 가수 등 대중문화는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술로서 감동하긴 했지만, '지'로서 함께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노마 히데키 인터뷰 중에서)

이 책에서 '지식인'은 '한국의 지식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일본어권의 학자가 기획자로 나선 만큼 한국과 일본의 대표 지식인들을 모두 아우르며 보편적 지로서의 '한국의 지'를 살펴본다. 회귀하고도 열정적인 학자덕분에 한일 양국 140명의 지식인이 '한국의 지'를 논하는 프로젝트다.

쟁쟁한 필진들이 이책에 모였다. 이 책이 처음 기획된 2013년 3월경부터 일본어권이 출간된 2014년 2월까지, 노마 히데키와 140명의 필자들은 한국의 지를 규명하기 위해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140명이 '한국의 지'와 부딪힌 순간을 담은 이 책은 이런 길고도 치열한 시간을 통해 완성됐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총 265종, 한국어권의 필자가 추천한 책은 총 136종이다.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필자가 공동으로 추천한 책으로는 최인훈의 '광장', 유희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전7권),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의 '토지'(전20권),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이다.

독특한 형상으로 이어진 표지 그림은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이상남의 그림이다. 그는 이 책에 구보타 시게코의 '나의 사랑, 백남준'을 추천했다.

“다양성이야말로 한국 ‘知’의 본질”

‘한국의 지(知)를 읽다’ 낸 노마 히데키

‘한국의 지’와 관련된 도서 추천 부탁에
한·일 지식인들 추천 목록 경향성 없어

한 언어권에서 산출된 지식의 전모를 개관하는 것은 한 인간의 지적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2012년 <한글의 탄생>을 펴낸 한·일 양국에서 반향을 일으켰던 노마 히데키 일본 국제교양대학 객원교수가 이 까다로운 작업에 도전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 지식인 140명에게 질문을 던졌다. 일본지식인들에게는 ‘당신은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를 알게 되었나’라고 물었다. 한국 지식인들에게는 ‘한국의 지를 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위즈덤하우스)는 그 결과물을 엮은 책이다. 일본에서는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교포 작가 김석범 등 지식인 94명이, 한국에서는 문학비평가 백낙청·김병익, 건축가 승효상, 소설가 성석제·김연수 등 46명이 참여했다.

“한류를 통해 한국의 문화는 많이 알려졌는데 ‘지’의 차원에서는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거의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어 판 출간을 맞아 7일 한국을 방문한 노마 히데키 교수는 능숙한 한국어로 말했다.

청탁서를 받고 한 번에 답을 보내준 이들은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일본어권 지식인들의 경우 ‘기획은 좋은데 난 잘 모른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제일 난감했던 건 ‘바빠서 못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죠.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매달려 물어지라도 있지만 바쁘다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어권 필진들은 주제가 너무 방대하다는 이유로 손사래를 쳤다. 기획을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일본어판이 나온 올해 2월까지 이들과 노마 히데키 교수 사이에 오고간 전화와 이메일은 수천여통에 이른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모두 265종이



다. 복수 추천을 받은 책은 이 가운데 26종에 불과하다.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것은 노마 히데키 교수의 <한글의 탄생>으로 모두 6번 추천됐다.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출간돼 3만부가 팔리며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그 다음으로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종혁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으로 5회씩이었다. 이외에 신경림 시인의 시집 <낙타>, 강영숙 소설가의 소설집 <리나>, 이광수의 <무정>, 현기영 소설가의 <순이 삼촌>, 신경숙 소설가의 <엄마를 부탁해> 등이 2번의 추천을 받았다. 전체 추천도서의 27%가 문학작품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역사와 한·일관계에 관한 책들이 많았다.

한국어권 필자들은 총 135종을 추천했다. 단 5종의 책만이 중복 추천을 받았다. <김수영 전집>과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각기 4번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토지>와 <정본 이상문학전집>, 화가 이우환의 <만남을 찾아서>는 각기 2번의 추천을 받았다. 한국어권 필자들의 경우 추천서의 31%가 문학작품이었다. 한글 관련 학술서들이 그 뒤를 이었고, 인문사회과학 책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은 만화로는 유일하게 추천 목록에 올랐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필자들의 추천도서 목록에서 “어떤 경향성을 찾기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재미있는 점은 (추천서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거예요. 이 다양성이야말로 ‘한국의 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이번 작업을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지를 읽는다’ 같은 프로젝트였다면 거절한 이들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일본에서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라는 단어가 나란히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는 것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이들이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책의 일본어판은 지난 1월 뛰어난 출판물에 주는 파피루스상을 받았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知的 최전선’에서 만난 한국의 知 모으고 싶었다”

기사입력 2014/10/08 09:10 송고

‘한국의 知를 읽다’ 번역 출간한 노마 히데키 교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일본어권에서는 이미 분야별로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대상’일 뿐이었죠. 지(知)라는 같은 평면에서 한국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저서 ‘한글의 탄생’을 통해 한글을 ‘지’의 관점에서 조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객원교수가 ‘한국의 지’에 관한 또 다른 기획의 결과물을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했다.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지식인 140명의 글을 모아 엮은 ‘한국의 知를 읽다’(위즈덤하우스)다.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최근 방한한 노마 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일본어권에서 ‘한국’과 ‘지’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 책은 거의 없었다”며 “한국의 지에 대한 일본어권과 한국어권 지식인들의 시각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노마 교수는 ‘지’를 “우리가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지성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론 오랜 세월 전수되는 기술 등 ‘암묵지’도 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일단 언어화한, 번역된 지를 다뤘다”고 말했다.

책을 두고 “학자들의 연구성과 모음집이 아니다”라고 밝힌 노마 교수는 필자를 선정하면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그래야만 진정한 한국의 지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책의 구성 자체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 양국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각자 읽은 책 가운데 자신을 ‘한국의 지’와 접촉하게 한 저작을 골라 소개하는 방식이다. 언뜻 흔한 서평 모음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들의 폭은 상당히 넓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 일본어권의 어떤 필자들이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를 접했는가에 관심이 갈 법하다. 사상이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등 유명 학자들은 물론 언론인, 출판인, 작가, 시민운동가, 영화 감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94명이 글을 썼다.

쉽게 손에 잡히는 주제가 아니어서 고사하러 한 필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노마 교수가 일일이 전화와 이메일로 이들을 접촉, 여러 차례 설득하고 원고를 청탁했다.

“한국 연구자나 한국학에 관여하는 사람, 한국과 접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본어권에서 ‘지의 최전선’에 관여하는 이들이라면 어딘가에서 한국의 지와 접촉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으고 싶었어요. 가라타니 고진처럼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필자가 다양한 만큼 언급된 저작들도 매우 넓은 영역을 아우른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전의 삼봉집부터 운동주와 김지하의 시, 전태일 평전, 박경리와 황석영의 소설 등 잘 알려진 저술이 있는가 하면 김중혁과 같은 현대 작가의 소설,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시나리오 같은 의외의 작품도 포함했다. 한일관계가 양국의 중요 현안이다 보니 이를 다룬 서적들도 여러 필자가 거론했다.

노마 교수는 “두 언어권 지식인들 간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다양성에 무게를 두려 했다”며 “처음부터 한국의 지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실제 원고를 취합해 보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성이 컸다”고 말했다.

비록 책이 명목상 ‘한국의 지’를 다루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지는 국가적 경계를 짓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국가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 확립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고유 영토’ 운운하는데 그런 게 어딤습니까. 홋카이도나 오키나와가 지금 일본 영토라고 해서 처음부터 일본 영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본이라는 국가도 현대 이데올로기의 산물입니다. 그런 데 매몰되니 ‘지’도 안 보이는 거죠. 한국의 지, 일본의 지라는 식으로 지의 경계를 짓기 어려움을 증명하는 책이 됐으면 합니다.”

노마 교수는 “다소 거칠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두 언어권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지를 정리하는 출발점을 만들면 이후 단계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에는 일본어권과 한국어권에서 보는 한국의 아름다움(美)을, 그 다음에는 마음(心)을 다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이프
출판

‘한글의 탄생’에서 ‘한국의 知’까지… 지식인의 눈으로 만나다

기사입력 2014-10-09 11:56 기+ 가- 02 3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한글과 한국의 말글살이에 대한 놀라운 통찰과 연구를 담아낸 노작 '한글의 탄생'으로 한일 양국 지식계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줬던 노마 히데키 일본 국제교양대학 교수가 또 한번 실력을 감행했다. 한일 양국의 지식인 140명에게 '한국의 지'를 물어 그 답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낸 것이다. 한국에서 46명, 일본에서 94명이 참여했다. 책은 지난 2월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여덟달만인 최근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김경원 옮김, 위즈덤하우스)이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현재 일본어의 세계에서 동시대의 한국문화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언어 자체를 매개로 한 분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이 훨씬 더 가능한 영화, 음악, 미술 등의 분야를 더욱 유연하고 폭넓게 받아들여 왔다"고 했다. 하지만 "문화를 널리 수용하고 있는 양상에 비해 '한국의 지'에 관한 물음을 꺼내 놓자마자 일본어의 세계는 망연해지지만 한다"며 이는 "일본 어권에서 감상하고 누리며 애호하며 감동하는 대상으로서의 한국의 문화는 존재해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교류를 벌이며 함께 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국의 지를 읽다'는 아시아지식공동체를 위한 시도이며, 교류를 위한 차이의 확인이라 할 것이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한일 양국의 학자, 평론가, 언론인, 작가, 대중문화전문가 등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지'를 만나게 해 준 책 1~5권 정도를 추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는 노마 히데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라는 감탄과 "고작 이런 것 밖에는 모른다니"라는 실망 사이에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내로라하는 지성 94명의 면면도 놀랍거나와 이이와 이항의 유학이론으로부터 최근 한국 젊은 소설가들의 작품까지 아우르는 분야와 추천서 목록의 폭이 상상 이상이다. 각 필자의 글을 2000자 내외로 제한한 점이 아쉽지만, 오히려 대중적으로 읽기에는 편하다. 한국 독자들에게 '일본 지식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지'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읽'이 지적 흥분도를 높인다. 이런 종류의 기획에서 으레 따르는 집대응 수사, 이른바 '주례사 비평'도 없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따로 불편할 정도로 솔직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유명한 가리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한국의 지와 만난 책으로 꼽았다. 가리타니 고진은 이 책이 "일본의 문화를 비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일본인론과 일본 문화론의 틀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기업이 소형차나 컴퓨터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축소' 지향 때문이 아니라 대형으로는 도저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세계사와 일본사를 일별하며 역사적인 결과로서의 축소 지향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축소할 때는 독창적이고 훌륭하지만 확장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파탄을 맞이한다는 이어령 교수의 시대 앞선 통찰을 높이 사며 지금 일본은 '축소의 독창성도 없게 버렸고, 허술한 평창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사상사가 가와하라 이데키는 정도전의 '삼봉집'과 이항의 '퇴계선생문집', 이이의 '율곡선생문집', 송시열의 '주자대전차의', 이익의 '성호선생문집'을 통해 조선의 사상과 철학을 깨닫고, "위대한 지의 보고"라고 꼽는다.

일본어로 번역된 한국 소설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이를 통해 한국의 지를 경험했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러시아 문학자 가이자와 하지메는 이승우의 '한낮의 시선'에 대해 "거의 신학적으로 할 증명된 무재의 비전이야말로 현대 일본 문학이 상실한 지 오래된 것"이라고 했다. 영화감독 니시카와 미와는 이창동의 소설집 '북천에는 종이 많다'를 추천했는데, 영화에 대한 평가가 탁월하다. 그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일일이 꼽으며 "어느 작품이든 광폭한 분위기로 휩쓸거나 억지 교묘함을 띠는 법 없이 비단실 같은 섬세한 실로 북부의 모공부터 소리도 없이 꿰매다가 어느샌가 오장육부를 꿩꿩 뒀어 버린다."고 했다.

출판인 구마자와 도시유키는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근대 시민 혁명'을 경험한 나라"라고 한국을 일컬었는데, '한국의 지를 읽다'의 많은 필자들이 김지하의 작품이나 '전태일 평전' 등 한국의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시기를 다룬 책들을 다수 꼽았다.

반면 한국 독자들에게 영 불편할 주장을 펼친 일본 지식인들도 있었다. 문학자 나쓰이시 반야는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거론하며 김알지는 일본에서 건너간 고대 조선이며, 말해왕은 고대 일본 출신의 신라왕이라고 했다. 소설가 아라야마 도호루는 한국 역사학계의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평론가 세키카와 나쓰오는 "한국이 고집하는 내셔널리즘은 고래부터 있어 온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물었다.

그러나 고대 및 중세 일본에 전해진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일본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지식인들도 있었고,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의 경우는 '백병일지'를 추천하며 "김구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그의 내셔널리즘이 근대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동질의 것이라 할 수 있을 까"라고 반문하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시작부터 '세력 확장주의'가 아니었던가. 그 정반대의 지점에 서서 어떤 보편적인 정신이 태어났는지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백병일지는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가 다채롭고 시각은 다양하지만, '한국의 지를 읽다'의 시도와 모색은 다음과 같은 건축가 단 노리히코의 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한중일의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 문제 때문에 세 나라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 사이에도 감정적인 균열이 더욱 격해지는 오늘날, 나는 눈에 보이는 '지'의 문화 교류만이 오로지 광명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세경 기자 | 입력 : 2014.10.09 17:44 | 수정 : 2014.10.09 17:44



일본인 학자 노마 히데키는 어느날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한국의 지(知)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이 편지를 받은 영화감독 이명세는 자신이 읽은 '이중섭 평전'에 대해 이같이 썼다. "책을 산 그날, 나는 밤을 새워 책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아, 예술가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가메야마 이쿠오 도쿄외국어대 교수는 김지하의 '불귀'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박정희 정권에 반기를 들고 두 번이나 사형판결을 받은 김지하를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던 것을 기억한다. 한국에는 이토록 강한 사람이 있구나!"

노마 히데키는 이렇게 모인 한·일 양국 지식인 140명의 답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한국인과 일본인 지식인들이 추천한 400권의 책이 담겼다. 1000통이 넘는 e 메일과 전화가 오간 어렵고 치열한 작업이었다. 원본인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는 일본에서 파피루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파피루스상은 학문적 업적과 아카데미즘의 이상이 달성된 저작물에 주는 권위있는 상이다.

지성인이 뽑은 한국의 지는 다소 어려울 듯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박경리의 '토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등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작품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책을 지성인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인 학자가 한국의 지를 찾기 위해 몰두하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자극을 준다. 일본의 지성인들이 한국의 지를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지, 한국인과 일본인 지성인들이 같은 책을 읽고 어떤 점은 같고 어떤 점은 다르게 평가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seilee@fnnews.com 이세경 기자

책마을

韓·日 지식인의 생각을 담아내다

입력 2014-10-09 23:51:24 | 수정 2014-10-09 23:51:24 | 지면정보 2014-10-10 A27면

한국의 知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 김경원 옮김 | 위즈덤하우스 | 752쪽 | 2만8000원

“감성적인 접근이 가능한 한국의 영화와 음악, 미술 등은 일본에서 깊이 있고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한국의 지(知)에 대해서는 일본어권의 뛰어난 지식인조차 자신 있게 말을 꺼내지 못한다. 한국의 문화 가운데 ‘지’는 일본어권에서 마치 암흑과 같이 함몰돼 있는 듯하다.”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객원교수는 이렇게 주장한다. 노마 교수는 2010년 세계문자사에서 한글의 혁명성을 철저한 이론적 근거와 탁월한 문체로 풀어낸 《한글의 탄생》으로 잘 알려진 인물. 그가 한국의 ‘지’에 접근해 보겠다고 2013년 3월부터 일본 지식인 94명, 한국 지식인 46명으로부터 책을 추천받아 그 책들에 대한 양국 지식인들의 생각을 담은 것이 《한국의 知를 읽다》이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한국의 ‘지’와 만날 수 있는 책을 추천한 양국 지식인의 면면은 다양하다. 역사학자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인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을 비롯해 학자, 언론인, 출판인, 작가, 시민운동가, 영화감독, 건축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책을 추천하고 글을 썼다. 일본어권에서 추천된 책이 265종, 한국 필자들의 추천서가 135종이다.

가라타니는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추천하면서 “일본인은 ‘축소할’ 때는 독창적이고 훌륭하지만 ‘확장’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파탄을 맞이하고 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일본은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한다. 그의 짐작이 들어맞았다”고 했다.

일본의 대표적 출판사인 헤이본샤의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는 김구의 《백범일지》를 추천했다. 그는 조지 오웰이 내셔널리즘과 애국심을 구별하면서 애국심을 ‘자신이 속한 특정 지역과 특정 생활방식에 대한 헌신’이라고 정의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한다. “이웃나라의 민족주의에는 ‘백범적 애국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반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와다는 고 리영희의 《분단민족의 고뇌》를 추천하면서 “그가 쓰는 문장의 치밀함과 예리함은 놀라고도 남을 정도지만 인품은 실로 부드러운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

‘한국의 知’ 알리기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한국의 知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여기 한·일 양국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이 있다. 먼저 일본 지식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知)’를 알게 되었나” 또 하나는 한국 지식인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한국의 지를 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일 양국 지식인 140명이 모였다. 전자의 질문에 가라타니 고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 교포작가 김석범 등 지식인 94명이 참가했다. 후자의 질문에는 문학비평가 백낙청, 건축가 승효상, 소설가 성석제 등 46명이 참여했다.

언어학자이자 일본 국제교양대학 객원 교수 노마 히데키가 펴낸 ‘한국의 知를 읽다’에는 한국의 ‘지’에 대한 양국 지식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출판돼 반향을 일으킨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이력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글의 탄생’으로 2012년 한글학회 주최 주시경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학자라는 사실이다. 한글학회가 주는 상을 외국인이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독도문제, 평화헌법 등 휘발성 있는 문제로 한일 양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던 시점에 선정된 그의 수상은 안팎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지’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지’와 스친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지’는 이 책이 지탱하고 지향하는 키워드다.

한국인인 우리들은 한국의 ‘지’를 근거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성장하면서도 그것의 토대인 ‘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인, 전문인은 익숙해도, 그 모든 것의 총체인 ‘지’라는 단어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프로젝트(2013년 3월~2014년 2월)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을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이유를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다. 아니 두

드러진 경향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일 터이다. 특정의 책을 한국의 ‘지’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모두 265종이었다. 그 가운데 복수 추천을 받은 책은 26종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것은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한글의 탄생’이 6번이나 추천됐다는 점이다.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출간돼 3만부가 팔리며 일본 지식인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자의 저서라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지식인들이 ‘한글’의 지적 성과를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지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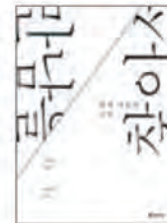
다음으로 많이 추천 받은 책은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종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이었다.

한국어권 지식인들은 모두 135종을 추천했다. 중복되는 책은 일본어권 필자보다 적어서 단 5권만이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김수영전집’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4번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밖에 박경리의 ‘토지’와 이상의 ‘정본 이상문학전집’, 이우환의 ‘만남을 찾아서’가 2번의 추천을 받았다.

양국 지식인이 공동으로 추천한 책은



백낙청·승효상·하루키 ...
한·일 지식인 140명 참여
知的 모든 것 파헤치다



최인훈 ‘광장’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 ‘토지’,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이다. 학문적 가치, 작품성, 대중성을 아우르는 책에 점수를 주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일 양국 지식인 모두 문학작품을 많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라면 사회과학서나 연구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문학수준과 정서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중요한 ‘지’로 요소로 본다든 의미다.

〈위즈덤하우스·2만8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한국의 知' 알리기 어떤 책을 소개할까

한국의 知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2014년 10월 10일(금) 00:00

노마 히데키 엮음

한국의 知를 읽다



여기 한일 양국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두 개의 질문이 있다. 먼저 일본 지식인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知(知)’를 알게 되었나” 또 하나는 한국 지식인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한국의 知를 알리기 위해 당신은 어떤 책을 소개할 것인가”

이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한일 양국 지식인 140명이 모였다. 전자의 질문에 가라타니 고진,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 교수, 교포작가 김석범 등 지식인 94명이 참가했다. 후자의 질문에는 문학비평가 백낙청, 건축가 승효상, 소설가 성석제 등 46명이 참여했다.

언어학자이자 일본 국제교양대학 객원 교수 노마 히데키가 펴낸 '한국의 知를 읽다'에는 한국의 '지'에 대한 양국 지식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지난 2월 일본에서 출판돼 반향을 일으킨 '한국·조선의 知를 읽다'의 한국어판이다.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이력이 흥미로운 것은 그가 '한글의 탄생'으로 2012년 한글학회 주최 추시경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학자라는 사실이다. 한글학회가 주는 상을 외국인이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독도문제, 평화헌법 등 휘발성 있는 문제로 한일 양국의 기류가 심상치 않던 시점에 선정된 그의 수상은 안팎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지'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만난 '지'와 소신 순간들을 이야기한다. '지'는 이 책이 지향하고 지향하는 키워드다.

한국인인 우리들은 한국의 '지'를 근거로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성장하면서도 그것의 토대인 '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인, 전문인은 익숙해도, 그 모든 것의 총체인 '지'라는 단어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른다.

노마 히데키 교수는 프로젝트(2013년 3월~2014년 2월)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을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이유를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 결과 의외의 답이 나왔다. 마니 두드러진 경향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일 터이다. 특정의 책을 한국의 '지'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다는 전제가 담겨 있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모두 265종이었다. 그 가운데 복수 추천을 받은 책은 26종에 불과하다. 눈에 띄는 것은 저자인 노마 히데키 교수의 '한글의 탄생'이 6번이나 추천됐다는 점이다.

이 책은 2010년 일본에서 출간돼 3만 부가 팔리며 일본 지식인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었다. 아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편자의 저서라 어느 정도 머드밴티지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일본 지식인들이 '한글'의 지적 성과를 가장 의미 있는 한국의 지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이 추천 받은 책은 운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종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이었다.

한국어권 지식인들은 모두 135종을 추천했다. 중복되는 책은 일본어권 필자보다 적어서 단 5권만이 해당되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김수영전집'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4번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미박에 박경리의 '토지'와 이상의 '경문 이상문학전집', 미우환의 '만남을 찾아서'가 2번의 추천을 받았다.

양국 지식인이 공동으로 추천한 책은 최인훈 '광장'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 '토지', 노마 히데키 '한글의 탄생'이다. 학문적 가치, 작품성, 대중성을 아우르는 책에 점수를 주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일 양국 지식인 모두 문학작품을 많이 추천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라면 사회과학서나 연구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문화 수준과 정서를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중요한 '지'로 요소로 본다는 의미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경북매일

문화
시간안내

한국 '知'의 본질은 다양성에 있었다
'한국의 知를 읽다' 노마 지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752쪽

승인 2014.10.10

정철화기자



“일본어권에서는 이미 분야별로 한국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많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은 어디까지나 연구의 ‘대상’일 뿐이었죠. 지(知)라는 같은 평면에서 한국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저서 ‘한글의 탄생’을 통해 한글을 ‘지’의 관점에서 조명한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객원교수가 ‘한국의 지’에 관한 또 다른 기획의 결과물을 최근 국내에 번역 출간했다.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지식인 140명의 글을 모아 엮은 ‘한국의 知를 읽다’(위즈덤하우스)다.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최근 방한한 노마 <사진>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일본어권에서 ‘한국’과 ‘지’라는 말이 함께 등장하는 책은 거의 없었다”며 “한국의 지에 대한 일본어권과 한국어권 지식인들의 시각을 공유

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

노마 교수는 ‘지’를 “우리가 삶을 사는 데 꼭 필요한, 지성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정의하면서 “물론 오랜 세월 전수되는 기술 등 ‘암묵지’도 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일단 언어화한, 번역된 지를 다뤘다”고 말했다.

책을 두고 “학자들의 연구성과 모음집이 아니다”라고 밝힌 노마 교수는 필자를 선정하면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그래야만 진정한 한국의 지에 다가갈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책의 구성 자체는 별로 특별하지 않다. 양국에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각자 읽은 책 가운데 자신을 ‘한국의 지’와 접촉하게 한 저작을 골라 소개하는 방식이다. 언뜻 흔한 서평 모음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들의 폭은 상당히 넓다. 한국 독자 입장에서 일본어권의 어떤 필자들이 어떤 책을 통해 한국의 지를 접했는가에 관심이 갈 법하다.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등 유명 학자들은 물론 언론인, 출판인, 작가, 시민운동가, 영화감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 94명이 글을 썼다.



쉽게 손에 잡히는 주제가 아니어서 고사하려 한 필자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노마 교수가 일일이 전화와 이메일로 이들을 접촉, 여러 차례 설득하고 원고를 청탁했다.

“한국 연구자나 한국학에 관여하는 사람, 한국과 접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본어권에서 ‘지의 최전선’에 관여하는 이들이라면 어딘가에서 한국의 지와 접촉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모으고 싶었어요. 가라타니 고진처럼 한국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필자가 다양한 만큼 언급된 저작들도 매우 넓은 영역을 아우른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정도전의 삼봉집부터 운동주와 김지하의 시, 전태일 평전, 박경리와 황석영의 소설 등 잘 알려진 저술이 있는가 하면 김중혁과 같은 현대 작가의 소설,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시나리오 같은 의외의 작품도 포함됐다. 한일 관계가 양국의 중요 현안이다 보니 이를 다룬 서적들도 여러 필자가 거론했다.

노마 교수는 “두 언어권 지식인들 간 차이를 부각하기보다 다양성에 무게를 두려 했다”며 “처음부터 한국의 지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리라 예상했지만 실제 원고를 취합해 보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양성이 컸다”고 말했다.

/정철화기자

‘한국의 지’ 실마리 찾기… 日 지식인 생각을 읽다

와다 하루키·김병익 등 사상가작가영화감독 양국 140명 400권 추천

한국의 지를 읽다 / 노마 히데키 엮음, 김경원 옮김 / 위즈덤하우스

한국의 지(知)란 무엇인가.

‘한글의 탄생’을 통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세계 문자사에서 갖는 한글의 의미를 탐색한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野間秀樹)는 이 간단치 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한다. 그가 ‘한국의 지’에 골몰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 일본 내 ‘한국의 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한국은 ‘지’라는 단어와 붙어 논의된 적이 없다. 영화, 미술, 드라마, **노래** 등 한국의 예술과 대중문화는 높게 **평가**되지만 ‘지’로서 함께 할 대상은 아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쌓은 지적 세계의 결과물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한국의 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한국의 지를 만나게 해준 책을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일본 필자들은 “한국의 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답을 거절했고, 한국 필자들은 “방대한 주제에 걸맞은 글을 쓸 자신이 없다”고 마다했다. 이에 그는 “한국의 지 전체에 대한 책이 아니다. 한국의 지와 스친 순간이 있을 것이니 그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 한국의 지에 다가가는 소중한 실마리를 얻고 싶다”고 다시 요청했다. 이렇게 해서 평론가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소설가 쓰시마 유코(津島里子)·나카무라 후미노리(軸見文則) 등 일본 지식인 94명과 문학평론가 김병익·백낙청, 소설가 신경숙·김연수, 영화감독 이명세 등 한국의 지식인 46명 등 140명의 필자로부터 책을 추천받고 이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마는 1000통이 넘는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 받아야 했다. 책은 올해 초 일본에서 출간돼,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파피루스상을 받았다.

140명의 필자가 추천한 ‘한국의 지’와 스치게 한 책은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이항의 퇴계문집, 김지하·윤동주·신경림의 시집, 박경리·신경숙·한강·김중혁의 소설, 뮤지컬 대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 관련책 등 다양하다. 압도적인 추천을 받은 책도 없다. 일본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265권, 중북 추천을 받은 책은 26종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 두 사람의 추천을 받은 정도다. 가장 많이 거론된 책은 여섯 명이 추천한 것으로, 역은이의 저작인 ‘한글의 탄생’이다. 이어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중혁의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 등이 중북 추천을 받았다. 한국 필자가 꼽은 책은 총 135종으로 가장 많이 추천받은 책은 김수영 전집,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4명 추천), 박경리의 ‘토지’, 이상의 ‘정본이상 문학전집’, 이우환의 ‘만남을 찾아서’(2명 추천)이다.

필자들의 글은 2, 3페이지로 짧지만 그 내용은 길이에 **비교**될 수 없이 여러 겹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준다. 한국 독자로서는 당연히 한국 필자의 글보다 일본 필자의 글에 더 관심이 간다. 이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우리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닌 낯선 타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지’, 그것도 뒤얽힌 과거사를 가진 일본, 일본 지식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지’이다. 여기에 더해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를 지향하고 동아시아에 무심했던 일본의 시선, 1980년대까지 독재에 신음하는 공포스러운 국가라는 **이미지**, 그러면서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 시민혁명을 이룬 국가라는 평가, 한국에 무관심하지만 늦은 밤에 켜놓은 라디오에서 한국 라디오 방송이 들려올 정도로 가까운 이웃, 한류로 새롭게 일본사회에 등장한 한국 등 복잡한 이미지와 시선들이 엮인다. 이중 삼중, 겹겹의 참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모습이다. 이와 함께 흥미로운 것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발견되는 일본과 일본 지식인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와다 하루키는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오래도록 절망적인 투쟁을 지속해왔는지 알고 싶어 한국 책과 잡지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가 추천한 책은 리영희의 ‘문단 민족의 고뇌’와 김지하의 ‘밤·활인’(오차노미즈 쇼보)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추천한 뒤 오래전에는 일본이 축소지향 문화라고 해석한 이어령의 고찰은 한계를 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 만연한 허술한 팽창주의를 보면서 일본이 축소지향에는 독창적이지만, 확장하는 일에는 적성이 맞지 않아 파탄할 것이라는 이어령의 지적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권시아** 문학자 가메야마 이쿠오(龜山郁夫)는 어렸을 때부터 유럽만을 동경했기에 한국은 정신적으로 가장 먼 나라였지만 김지하를 통해 한국에 이토록 강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다고, 문예평론가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시인 윤동주를 통해 자신의 동아시아관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사상가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는 일본인이라는 존재를 바닥부터 뒤흔들 것이라는 두려움이 명성황후 시해 문제를 직시하려는 자신의 의지를 방해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처럼 책에 묶인 일본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지, 또 그와 스친 순간은 모두 다르다. 지(知)가 갖는 광범위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것, 일본이 한국의 지를 바라보는 이 다양함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지적 경험이다.

노마 히데키 위문
김경원 필자

한국의 지
를 읽다



【서울=뉴시스】 한국의 지를 읽다 2014-10-09

【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 “최근에 새삼스레 그의 교활이 매우 예견에 넘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일본인은 ‘축소할’ 때에는 독창적이고 훌륭하지만 ‘확장’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파탄을 맞이하고 만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메이지 이후의 일본 국가가 그 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은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험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한다. 그의 짐작은 틀어맞았다.‘가라타니 고진,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대한 글 중)

한글의 위대함과 섬세함을 논의한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을 통해 한 일 지식사회에 화두를 던진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의 ‘한국 조선의 지(知)를 읽다’가 ‘한국의 지를 읽다’로 국내 번역 출간됐다.

한국의 지식인 46명, 일본의 지식인 94명이 노마 교수의 질문 ‘한국의 지(知)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다.

그의 전작 ‘한글의 탄생’이 ‘지’의 관점에서 한글을 조명한 그의 첫 번째 ‘지’ 프로젝트라면 ‘한국의 지를 읽다’는 ‘지’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 전체를 조망한 그의 두 번째 ‘지’ 프로젝트다.

노마 교수는 “심한 말일지 모르지만,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知)’라는 단어가 붙어서 논의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면서 “물론 한국의 예술, 영화와 드라마, 노래, 배우, 가수 등 대중문화는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술로서 감동하긴 했지만, ‘지’로서 함께하는 대상은 아닙니다”라고 짚었다.

그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한국의 지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 준 책을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일본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번역해 일본에 러시아 문학 붐을 일으킨 가메야마 이쿠오는 김지하의 ‘물귀’, ‘화산도’라는 방대한 작품으로 제주 4·3사건을 고발한 재일한국인 작가 김석범은 문경수의 ‘한국현대사’, 일본의 대표적 출판사 헤이본사의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는 김구의 ‘백범일지’, 역사학자 외다 하루키는 리영희의 ‘문단민족의 고뇌’를 추천했다.

계간 ‘창작과 비평’의 창간인이자 한국 재야 원로의 좌장격인 백낙청은 김석철의 ‘한반도 그랜드디자인’,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 송효상은 이문구의 ‘관촌수필’, 소설가 신경숙은 최인훈의 ‘광장’, 스타일리스트 영화감독 이영세는 고은의 ‘이중섭 평전’, 현대미술가 이상남은 구보타 시게코의 ‘나의 사랑, 백남준’을 추천했다.

장장한 필진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한 과정은 쉽지 않았다. 편자가 처음 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응답률은 고작 20% 정도였다고 한다.

일본어권의 필자들은 자신은 한국의 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집필 자격이 없다고 했고, 한국어권 필진은 이런 방대한 주제에 걸맞은 글을 쓸 자신이 없다고 했다.

필자들의 이런 반응에 노마 교수는 편지를 다시 보냈다. “한국의 지 전체에 근거해 책을 추천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꾸로 그런 일 자체가 지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관여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한국의 지와 스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공유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의 지에 다가가는 소중한 실마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일본어권이 출간된 올해 2월까지, 노마 교수와 140명의 필자는 한국의 지를 규명하기 위해 1000통이 넘는 전화와 e-메일을 주고받았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265종이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노마 교수의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으로 6명이 추천했다.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중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

한국어권의 필자가 추천한 책은 135종이다. 한국어권 필자들은 중복되는 책이 일본어권 필자들보다도 적어서 단 5권만 중복 추천을 받았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은 ‘김수영 전집’(전 2권)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전 7권)로 4번의 추천을 받았다.

일본과 한국 지식인들이 추천한 도서 중에는 문학작품(에세이 포함)이 눈에 많이 띄었다.

노마 교수는 “지’라고 하면 으레 어려운 사회과학서나 연구서를 떠올리기 쉽지만, 지식인들은 한 나라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 주고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작품을 한 나라의 매우 중요한 ‘지’의 요소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필자가 공통으로 추천한 책으로는 최인훈의 ‘광장’,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전7권),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의 ‘토지’(전20권), 노마 교수의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이 있다. 752쪽, 2만8000원, 위즈덤하우스

realpaper7@newsis.com

문화 ▾

[잠깐 읽기] 한국의 知(지)를 읽다 / 노마 히데키

한·일 지식인이 말하는 한국의 지성

2014-10-11 [08:13:23] | 수정시간: 2014-10-11 [08:13:23] | 15면



지(知)란 흔히 지식, 지성의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지식인, 전문가이라는 말은 익숙해도, 지(知)라는 말은 아주 낯설다. 한데, 일본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국의 지(知)'에 주목했다. '한국의 지'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한국의 지식인(46명)과 일본의 지식인(94명)이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한국의 知(지)를 읽다'는 그 답변을 담은 책이다. '한국의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지'에 관한 책을 각자 한 권에서 다섯 권 정도 추천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적게 했다. 일본의 철학자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추천했다. 가라타니 씨는 "저자의 고찰과 예견이 세월이 지나 새삼 들어맞았다"고 말한다.

특히 일본 지성인이 '한국의 지'를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다니"라며 놀랄지도 모른다. 노마 히데키 역음/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752쪽/2만 8천 원.

정달식 기자 dosol@

일본 지식인이 들여다본 한국 책 속의 지성

韓-日 지식인 140명의 서평 모음집

입력 2014-10-11 01:26:46, 수정 2014-10-11 01:28:46

한국의 **知**를 엮다/노마 히데키 역음/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2만8000원



노마 히데키 역음/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2만8000원

책을 엮은 노마 히데키 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에게 “한국의 지(知)와 ‘스친’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응답한 140명의 글을 모아 완성한 책이다. 거칠게 말하면 서평 모음집에 가깝다. 하지만, 대상이 된 책을 친절하게 소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글을 읽는 재미는 덜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천착하고 얻은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 책의 가치는 노마 교수의 요청에 응한 일본인 지식인 94명이 보여주는 한국의 지와 그것을 생산한 지식사회에 대한 인상을 간추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노마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라는 단어가 붙어서 논의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니 인상 이상의 것은 아니겠다. 물론 그것이 일본 지식인 전부의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우리와는 복잡한 역사와 감정으로 엮힌 일본의 지식인들이 들려주는 인상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독도, 종군위안부, 역사 왜곡 등 한-일 양국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재를 다룬 책을 언급한 참여자들이 눈에 띈다. 문학자 시마다 사이시, 소설가 쓰시마 유코 등이 ‘화해를 위해서-교과서, 위안부, 야스쿠니, 독도’를, 국립국회도서관에서 일하는 이사와 다케토시는 ‘한국인의 역사관’을 소개한다. 이들은 소개한 책들이 보여주는 ‘냉정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쌍방의 역사관=서사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을 공평하게 지적한다”, “한일 사이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는 문제에 대해 양국의 사정을 냉정하게 비교했다” 등이다. 물론 이런 평가는 당위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일본 지식인들이 그것에 유독 주목한 건 “한국이 갈등 현안에 대한 냉정함을 잃고 있다”는 평소의 인식을 역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해를 위해서’의 저자 박유하 교수가 한국의 반일주의를 비판해 온 학자라는 점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 박 교수는 얼마 전 낸 ‘제국의 위안부’에서 보여준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돼 한국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재일 한국인을 다룬 책을 추천한 참여자들이 적지 않다. 교육학자인 가와구치 요시카즈가 ‘재일 코리안이 왜대?’를, 출판인 구마자와 도시유키가 ‘딸에게 이야기해 주는 조국’을, 번역가 나카노 노리코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두 개의 조국과 일본에서 살다’를 언급한다.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고도 뿌리 내리지 못한 재일 한국인을 일본사회를 반성하는 계기로 인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가와구치는 “재일 코리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아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서 미래의 전망을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라고 적었다. 나카노는 “태어난 나라인데도 조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일본인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삼국유사’, ‘삼국사기’를 소개한 문학자 나쓰이시 반야의 글을 보면 한-일 간의 현격한 인식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나쓰이시는 우리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정도의 해석을 내놓는다. 김일지 관련 기사를 소개하면 “일본에서 건너간 고대 조선”이라고 하는가 하면 “탈해왕은 아무래도 고대 일본 출신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국, 일본의 지식인이 “한국의 지(知)와 스친 순간을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며 추천한 주요 책들의 저자. 시인, 소설가들이 많아 지식인들이 한국의 지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문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은 왼쪽으로부터 윤동주, 김수영, 최인훈, 유홍준, 신경숙

세계일보 자료사진

출판사에 따르면 일본 지식인들이 추천한 책은 모두 265종이고, 누적 추천을 받은 책은 26종이었다. 한글 관련 책이 많은데, “한글의 지적 성과가 한국의 지 전체에서 그만큼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분석했다. 역자인 노마 교수의 책 ‘한글의 탄생’ 다음으로 많은 추천을 받은 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악기들의 도서관’이었다. 한국 지식인들은 135종의 책을 추천했고,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은 ‘김수영 전집’과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였다. 양국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책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최인훈 ‘광장’, 박경리 ‘토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등이었다. 추천 도서 중에 문학이 많은 건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과 정서를 드러내는 문학을 지식인들이 한 나라의 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류사와 다케시



추천책
김구 '백범일지'

가라타니 고진



추천책
이여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노마 히데키



추천책
정도전 '삼봉집'

가와하라 히데키



日 지식인들 '한국의 지'를 찾아서...

노마 히데키의 '한국의 지(知)를 읽다'를 읽고 드는 생각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외부인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것이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다를 아니다. 특히 이 책이 일본인 학자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런 느낌이 든다.

한글의 위대함과 섬세함을 논한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을 통해 한일 지식인사회에 화두를 던진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일본 국제교양대 교수의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가 '한국의 지를 읽다'는 이름으로, 우리문화의 정수인 한글이 만들어진 한글날을 맞아 국내 번역 출간됐다. 한국의 지식인 46명, 일본의 지식인 94명이 노마 교수의 질문 '한국의 지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이다.

여기서 '지(知)'라는 것을 단순히 '알'이라는 의미보다는 '지식'이라고 할 때의 '지'에 가깝다. 노마 교수는 "일본에서는 '한국'이라는 단어와 '지(知)'라는 단어가 붙어서 논의된 적이 기본적으로 없다"면서 "물론 한국의 예술, 영화와 드라마, 노래, 배우, 가수 등 대중문화는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술로서 감동하긴 했지만 '지'로서 함께하



■ 한국의 지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위즈덤하우스 펴냄

백낙청·가라타니 고진 등
韓 46명·日 94명 지식인 참여
'한국 지성' 만났던 책 추천
'한글의 탄생' 가장 많이 꼽혀
'양국 관심사 알수 있는 작업'

는 대상은 아니었다"라고 짐었다.

그는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한국의 '지'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을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 준 책을 1~5권 추천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달라."

일본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여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해 일본에 러시아 문학 붐을 일으킨 가메야마 이쿠오는 김지하의 '불귀'를, 대표적 출판사 헤이본사의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는 김구의 '백범일지'를,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리영희의 '분단민족의 고뇌'를 각각 추천했다.

또 한국쪽에서도 계간 '창작과 비평'의 창간인이자 한국 재야 원로의 좌장격인 백낙청은 김석철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을, 소설가 신경숙은 최인훈의 '광장'을, 영화감독 이명세는 고은의 '이중섭 평전'을, 언론인 홍현준은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와 장하준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각각 추천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한다. 잘 모른다, 이런 주제에 대해 집필할 자격이 없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왔다. 노마 교수는 "한국의 '지' 전체에 근거해 추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식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한국의 '지'와 스친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런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고 다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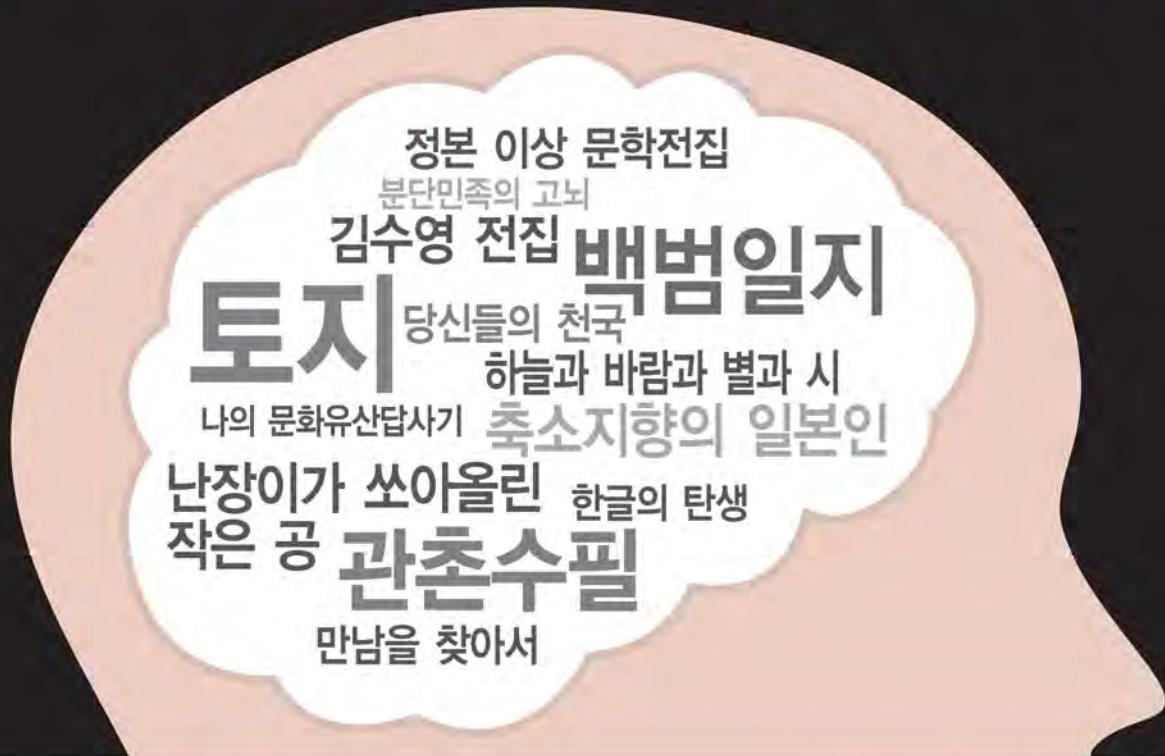
한국의 독자에게는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의 '지'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심이 될 수 있다. 일본측 필자들이 추천한 책은 265종인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이 책의 편자이기도 한 노마 교수의 '한글의 탄생'으로 6명이 추천했다.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중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도 많은 추천을 받았다. 저자는 이 책이 학자들의 연구성과 모음집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양국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임에는 틀림없다. 거꾸로 한국에서는 왜 '일본의 지를 읽다'라는 방식으로 꾸린 것이 없을까. 일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연구역량이 부족한 때문일까.

노마 교수는 다음 작품으로 일본과 한국에서 보는 한국의 미(美)와 심(心)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라고 한다. 외국 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한국의 모습이 기대된다. 2만8,000원.

/최수문기자 chsm@sed.co.kr



'한국의 지성 일군 한국 책' 뭘니까



정본 이상 문학전집

분단민족의 고뇌

김수영 전집 백범일지

토지 당신들의 천국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축소지향의 일본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한글의 탄생

작은 공 관촌수필

만남을 찾아서

지난해 봄 한국과 일본에 있는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한국의 '지(知)'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을 1-5권 추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 주세요." 발신인은 일본의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 국제교양대학교 교수였다. 한글의 혁명성을 말하는 책 '한글의 탄생'으로 2012년에는 외국인 최초로 한글학회가 주관한 주시경상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한국의 지'에 대한 수집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이미 일본에서 영화, 미술, 문학 등 한국문화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지만 '한국의 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어권에서 감상하고 누리고 애호하며 감동하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문화는 존재해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고투를 벌이며 함께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의 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이 과감한 '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하는 동력이 됐다.

지식인들의 답장을 받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첫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한국의 지에 대해 일본어권 필자들은 "너무 아는 바가 없다"고 사양했고, 한국어권 필자들은 "주제가 너무 방대하다"며 고사했다. 하지만 노마 교수는 "한국의 지와 스친 순간을 공유해 달라"며 다시 한번 설득에 나섰다. 이 결과물은 일본에서 먼저 출간돼 일본의 권위 있는 출판상인 파피루스상을 받았다. 한국어판은 '한국의 지지를 읽다'라는 제목으로 이번에 출간된 것이다.

지식인들이 손꼽은 한국의 '지'는 다양하다.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는 "한국 지식인의 지적인 발자취를 알고 난 뒤 지적 흥분을 느낀 것은 1970년대였



한국의 지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김경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2만8000원

'진정한 지의 부재' 문제의식서 출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일깨워 줘

다. 한국의 군사독재권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에 감동했다"며 고(故) 리영희의 '분단민족의 고뇌'를 독자들에게 권한다. 실제로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던 리영희에 대해 와다 하루키는 "문장의 치밀함과 예리함은 놀라고도 남을 정도지만 인품은 실로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평했다.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는 김구의 '백범일지'를 두고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반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지식인들 중에서 건축가 승효상은 한국의 지에 관한 책으로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추천했다.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투쟁 관계로 파악하지 않고 계급 문제를 대결 구도로 이끌지 않았다"는 평이다. 소설가 신경숙은 최인훈의 '광장',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꼽았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인 한국전쟁이 불러일으킨 이데올로기 문제, 말이 감시당하고 자유롭지 못했던 시대의 권력 구조 문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밑거름이 됐던 산업사회의 문제들"이 세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지식인이 본 일본에 대한 고찰도 인상적이었던 듯하다. 일본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소개하며 저자의 통찰에 감탄한다. "일본인은 '축소할' 때에는 독창적이고 훌륭하지만 '확장'하는 일은 적성에 맞지 않아 파탄을 맞이하고 만다고 저자(이어령)는 말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메이지 이후의 일본 국가가 그 예다. 패전 후 일본인은 '축소'로 독창성을 실현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협하지 않겠느냐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그의 집작은 들어맞았다." 140명의 지식인들이 추천한 책 중 일부는 중복되기도 했다. 일본어권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책은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기도 한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이었고, 다음이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한국어권 필자들이 중복 추천한 책은 '김수영 전집',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가장 많았고 이우환의 '만남을 찾아서', 박경리의 '토지', 이상의 '정본 이상 문학전집'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지'를 책의 형식으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 노마 히데키는 "지를 지탱하는 토대는 책"이라며 "책 없이 지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알지는 일본에서 건너간 고대 조선인이며 탈해왕은 고대 일본 출신의 신라왕"이라고 주장한 문학자 나쓰이시 반야의 경우처럼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의 '지'를 이해하고 기록해 나가려는 이방인의 시도와 노력만큼은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를 알기 위해서 혹은 일본의 '지'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반문하게 된다. 노마 히데키는 앞으로 한국의 '미'와 '마음'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한국의 지를 읽다 외

2014년 10월 16일 (목) 지면보기 | 13면

양수녀 기자 ✉ circus22@kihoilbo.co.kr

한국의 지를 읽다.

저자 노마 히데키. 위즈덤하우스. 752쪽. 2만8천 원.

올해 2월 일본의 쿠몬 출판사에서 「한국·조선의 지(知)를 읽다」라는 책이 출간됐다. 한국의 지식인 46명, 일본의 지식인 94명이 '한국의 지(知)란 무엇일까?'라는 뜻밖의 질문에 남긴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답변을 정리한 책이다.

새 책 「한국의 지를 읽다」는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의 한국어판. 세계문자사에서 '한글'의 혁명성을 말하는 책 「한글의 탄생」으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글학회 주관 제6회 주시경상을 받은 노마 히데키의 작품이다.



이 책의 편자 노마 히데키는 지난해 3월 한일 양국의 지식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한국의 지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 준 책을 1권에서 5권 정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라고.

그러자 양국의 지식인들은 모두 400여 권의 책을 추천했다.

이 중 사상가이자 문예비평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번역해 일본에 러시아 문학 붐을 일으킨 가메야마 이쿠오는 김지하의 「불귀」를, 「화산도」라는 방대한 작품으로 제주 4·3사건을 고발한 재일한국인 작가 김석범은 문경수의 「한국현대사」를 한국의 지로 꼽았다.

또 한국에서는 「창작과 비평」의 창간인이자 한국 재야 원로의 좌장 격인 백낙청이 김석철의 「한반도 그랜드 디자인」을, 빈자의 미학으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은 이문구의 「관촌수필」을, 이제는 한국 문학의 얼굴이 된 신경숙은 최인훈의 「광장」을,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영화감독 이명세는 고은의 「이중섭 평전」을 손에 꼽았다.

특히 한국어권과 일본어권 필자가 공동으로 추천한 책으로는 최인훈의 「광장」,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박경리의 「토지」,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문자〉라는 기적」 등이 있다. 양국의 지식인들은 학문적 가치와 작품성은 물론이고 대중성까지 확보한 이와 같은 책들을 한국의 ‘지’로 꼽아 이목을 끈다.

저자는 “이 책에서는 주로 근현대에 이뤄진 ‘한국의 지’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지만, 이 책이 앞으로 한국어권과 일본어권의 오랜 지적 교류를 연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을 생산하는 작업에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올 초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조선의 지를 읽다」는 출간과 동시에 일본 지식사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이달 1일 일본의 ‘제12회 파피루스상 수상작’에 선정되기도 했다.



새로 나온 책

시사IN 편집국 | webmaster@sisain.co.kr



한글의
탄생

한국의 知를 읽다

노마 히데키 엮음, 김경원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

노마 히데키 국제교양대학 객원교수는 한글의 지적·미적 혁명성에 대해 설명한 <한글의 탄생>을 쓴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어느 날 한·일 양국 지식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한국의 지(知)를 알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을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 1~5권을 추천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적어달라.” 응답률은 20%였다. 일본인 학자 일부는 한국의 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다시 편지를 보냈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스친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 순간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노마 히데키와 한·일 양국 필자 140명은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책을 추천받아 엮다 보니 책 안내서의 형태가 되었다. 일본어권 필자들이 추천한 책 265종 중 겹치는 책은 26종에 불과했다. 가장 많이 추천받은 책은 편자인 노마 히데키의 <한글의 탄생>이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김종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 순서로 이어졌다. 한국어권 필자가 추천한 책은 135종이다. 이 중 5권만 중복 추천됐다. <김수영 전집>과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가장 많았다. 양국 공동으로 추천한 책은 <광장>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엄마를 부탁해> <토지> <한글의 탄생>이었다.



△한국의 지(知)를 읽다(노마 히데키 엮음·김경원 옮김)=일본인 학자 노마 히데키는 '한국의 지(知)'에 주목했다. 전작인 '한글의 탄생'에서 세계의 문자 역사에서 한글의 혁명성을 말하던 그는, 이번에는 한국의 지 전체를 조망했다. 책은 사상가, 언어학자, 소설가, 현대미술가, 영화감독 등 한 나라의 '지'를 만들어 가는 140여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다. 이면에는 한국의 지를 규명하기 위해 1000통이 넘는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그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작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인'과 '전문인'들에 익숙했던 독자들에게 총합인 '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만든다. 위즈덤하우스·752쪽·2만8000원

한겨레21

이웃 나라에서 본 '우리의 얇' [2014.10.20 제1032호]

[오늘의 하드커버] 노마 히데키의 <한국의 지를 읽다>

일본 언어학자 노마 히데키 교수는 학자, 번역가, 작가 등 일본 지식인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의 '지'와 만나게 해준 책을 추천해달라"는 편지를 썼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지적 재산과 스친 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94명의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책은 노마 히데키가 쓴 <한글의 탄생>이었고, 그다음은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김종혁 단편집 <악기들의 도서관> 순이었다.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하면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말이 연관검색어처럼 떠오르는 데 비해 한국과 '지식' '얇'은 영 낯선 조합이라고 했다. 일본어권에 번역된 한국 문학과 인문서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정황을 140명의 한국-일본 필자가 쓴 <한국의 지(知)를 읽다>(노마 히데키 역음·김경원 옮김·위즈덤하우스 펴냄)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아사히신문사 기자 사쿠라이 미스미는 리영희·임현영의 대담집 <대화>를 추천하며 "이 책의 일본어판이 아직 없다. 변함없이 일본은 이웃 나라의 지에 무관심하고 또 무지하다"고 비판했지만 우리라고 일본에 대해서 더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한국과 일본, 오래된 사이지만 서로를 모르는 두 나라가 '얇'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서 평론가 세키카와 나쓰오는 "한국엔 내셔널리즘이 없다. 한국의 내셔널리즘은 실은 '남을 싫어하는 마음'과 '자기 편 챙기기'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솔직한 질문을 던진다. 출판인 류사와 다케시는 오히려 김구의 <백범일지>를 언급하며 "일본의 내셔널리즘은 시작부터 세력 확장주의가 아니었는지" 반성하면서 "그 정반대의 지점에서 어떤 보편적인 정신이 태어났는지 주목하자"고 제안한다. 책읽기는 언제나 자신을 향하는 행위라는 증거다.

물론 책에선 이창동 감독의 <녹천에는 풀이 많다>를 추천하는 니시카와 미와 같은 이나 일본인은 공지영 <도가니>나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어야 한다는 사쿠라이 미스미 같은 사람들도 있다. 와세다대학 마쓰나가 미호 교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을 과연 '한국다움'을 기준으로 언급할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기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하는 새로움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한강, 김종혁, 구효서 작가의 문학을 추천한다. 책을 엮은 노마 히데키의 흠추는 듯한 문장은 외국인이 한국 문화에 바친 최고의 찬사로 기록할 만하다. 그는 책 말미에서 "한글은 일본어의 에크리튀르(문자)가 경험한 적 없는 터무니없는 위기를 깨끗하게 살아왔다. ...한글로 쓰인 문자열은 우리가 배워야 할 얇에 대한 투쟁대열"이라며 글을 맺는다. 책에 참여한 한국어권 지식인 46명은 '한국의 지'를 대표하는 책으로 <김수영 전집>과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가장 많이 꼽았다.

